

송도유랑(Contraction and Expansion_수축과 팽창)

기획/주최 - 최정수

후원 -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참여 작가 - 살누스, 송하영, 이한나, 정성진

일시/시간 - 2024.10.27.Mon. - 2024.11.01.Fri. / 10:00~18:00

장소 - ART SPACE IN

〈전시 소개〉

본 전시는 인천문화재단의 2024 시각예술 지원 사업을 받아 진행된다. 현재의 송도(松島)는 인천의 그 어느 지역보다 혹은 전국의 그 어느 도시보다 활발한 변화와 함께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나 현재로 보나 “무에서 유”를 만들어 온 장소로 살펴볼 수 있다. 1930년대 중반 10만여 평의 매립지에 관광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 인천이라는 프로젝트 아래 송도유원지라는 거대한 관광지를 조성하기도 하였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썰물 때면 새까만 갯벌이 드러나던 그야말로 백지상태에서, 여의도 17배 면적의 지금의 글로벌 자유경제구역으로 탄생된다. 이처럼 미래를 차단당한 도시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그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또한 2025년 8월까지 인천경제청은 장기 개발 지연으로 방치된 송도유원지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다시금 첨단산업과 관광, 레저, 주거 기능을 포함한 종합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 연수구 일대는 현재 송도 국제도시라 불리는 송도동과 원도심으로 구분된다. 송도라는 지명은 원래 옥련동 일대를 부르는 말로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중반 지금의 송도로 불리기 시작한다. 이후 과거 송도유원지가 번성할 때는 관광으로 부흥했지만, 현재는 주변에 남아있는 유흥시설을 통해 그 흔적을 짐작할 뿐이다. 원도심의 오래된 유흥시설과 다세대 주택, 중고차 매매 단지 너머로 보이는 신도심 공간은 화려한 건축물과 함께 독특한 도시 풍경을 형성하며 극적인 대비를 연출한다. 이번 전시의 주된 목적은 4인의 시각예술가들의 시선을 통해 송도의 역동성과 미래에 대한 독특한 시간적 도시 변화를 감각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각적 내러티브를 제시하여 감상자들과 새로운 도시 변화에 대한 관계성을 전달하는 것이다. 비단 여기 송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에 의해 물리적 공간 변화뿐만이 아니라 지워지고 사라지는 역사적 이야기 그리고 흔적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양립적인 관계성을 “수축과 팽창”이라는 개념으로 압축하여 예술가들 각자의 시각 언어와 매체를 통해 재해석 된다.

1990년대 중반, 송도는 인천 서해 연안을 매립하는 간척 사업을 시작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탄생된다. 하지만 드넓은 간척지를 매립할 흙을 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때마침 문학 경기장과 인천지하철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문학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 산을 깎고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며 나온 흙과 건축폐기물로 송도 갯벌을 메우면서 간척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시간의 흐름 속에 살누스 작가 역시 본인도 잠시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게 된다. 지금의 문학 경기장 지붕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지상의 고지대와 지하를 파낸 엄청난 양의 부산물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메워지고, 채워져서 새로운 평지가 된다는 점, 송도 간척 역사의 시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흥미로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또한 이어지는 작가의 독특한 상상은, ‘결국 주체가 누구였든, 의도가 무엇이었던 “사실관계” 자체를 따져보았을 때 송도는 일종의 ‘클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서 출발해 삼쌍둥이 크리처를 비롯한 기형적 외관의 복제 생물의 이미지, 혹은 레이어(이미지) 자체의 중첩, 복제의 이미지들에 대한 상상력이 뿔어나간다. 또한 송도는 개발되기 이전 넓은 갯벌이었다는 점에서 갯벌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들의 축축하고 기괴한 특유의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이러한 작가의 얽혀 있는 기억들과 함께 한국전쟁 후 미군과 영국군의 주둔지로서, 이후 다시 관광 휴양지로서, 또한 현재의 모습까지 아이러니한 장소적 교집합은 작가의 작품에서는 독특한 조형적 이미지들로 대형화면에 제시된다.

송하영 작가의 회화 설치는 격자 형태로서 송도의 여러 장소에서 수집한 색상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재배열한다. 그리고 형광색을 주요 색상으로 사용해 도시의 역동적인 변화를 강조한다. 작가는 직관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도시의 시각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패치워크 형식에서 벗어나 격자 패턴을 채택한다. 작품에서 사용되는 색상들은 송도에서 수집된 가시적 풍경에서 작가가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경험한 비가시적 감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형광색을 주로 하여 도시의 강렬한 에너지와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이번 작업에서는 ‘슈퍼노바(Supernova)’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어, 송도가 보여주는 폭발적인 성장과 진화를 시각적으로 담아낸다. 슈퍼노바는 신성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가진 별의 폭발을 의미하며, 짧은 시간 동안 은하 전체에 필적하는 빛을 발산한다. “Supernova & Highlight”는 송도의 시각적 풍경을 색상 스펙트럼으로 재구성하여 도시의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작업의 구성이다. 형광색을 통해 도시의 에너지와 변화를 시각화하고, 격자 형태로 구조화된 색상을 통해 이야기를 직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풀어낸다. 이번 작업은 송도의 현재와 트렌디한 역동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의 진화 과정을 추상적으로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한나 작가는 잊히거나 소외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한다. 소멸되는 재료를 이용한 설치작업을 하고 이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번 “Back from the Future” 작업은 영상 설치를 통해 관객의 기억 속에 추억 한편을 끄집어낸다. 누구나 어릴 적 가족과 유원지나 놀이공원으로 나들이를 한 추억을 간직하고 산다. 송도의 역사 속에는 1937년 지금의 원도심에 문을 연 송도유원지가 자리 잡고 있다. 약 74년이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곁에 있다 사라진 이곳은 지금은 인천시민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작가는 과거 회상과 동시에 어릴 적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송도유원지에 있었던 놀이 기구들(대관람차, 회전목마,,,)과 원숭이 동물원을 연상시키는 영상들을 3d 프로그램을 통해 재현한다. 이를 홀로그램 기법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타임캡슐을 열어 시간 여행하듯 투명한 반구 속에 영상들은 관객의 아련한 추억 속으로 이끌며 뜻하지 않은 오래된 시간의 기억을 작품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해몽경”은 꿈의 신호를 해석해 영상으로 송출하는 장치를 뜻한다. 인간의 무의식은 꿈을 통해 구체화되며 잠을 자는 동안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와 이야기로 나타난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그 방대한 내용은 대부분이 사라져 버린다. 꿈의 세계는 허무맹랑하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나 불안 등 현실에서 해소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피처의 기능을 가진다. 그러한 꿈을 붙잡고 시각화하기 위한 몇 가지 기술적 시도들이 있었다. 정성진 작가는 과학적 상상력에서 출발해 인간의 꿈과 무의식의 파편을 붙잡고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으로 송출하는 가상의 장치를 제작한다. 전파망원경을 닮은 구조물에는 날개에 8개의 LCD 패널과 중심에는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달려있어 끊임없이 영상을 재생한다. 영상 속에서는 송도 도심 풍경이 끝없이 재생되고, 그러한 꿈의 재생 과정을 여러 이미지의 파편들로 재구성된다. 낮은 해상도에서 높은 해상도로, 어떤 이미지는 일부가 손실되기도 하고 특정 부분이 과장되며 왜곡되기도 한다. 불완전한 이미지와 영상의 나열은 우리의 기억과 감정이 불완전함을 드러내며 현실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과 태도를 나타낸다.

도시의 물리적 변화는 먼저 도시개발에 의해 인구수, 경제구조, 사회, 문화, 환경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도시 경계가 확장된다. 또한 원도심은 반대로 전반적인 모든 구조가 축소되고 위축된다. 이러한 팽창과 수축은 양립적이며 또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호작용으로 작동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4인의 작가는 타자의 관점에서 일정한 거리 두기를 통해 도시공간을 바라본다. 물리적 도시공간의 변화와 함께 그 이면에 지워지고 사라진 흔적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감각하고 반응한다. 이러한 반응들은 ‘수축과 팽창’이라는 개념으로 치환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존재자로서 시각적으로 해석하고 사유(思惟)한다.

기획/주최 최정수